

투어 번호
LKQH2J3EH3

# 콜롬보에서 출발하는 윌팟투와 아누라다푸라 (2일)

2일 · 1박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 이 체험 소개

이 2일 프라이빗 투어는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출발하여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와 윌팟투 국립공원의 지프 사파리를 결합합니다. 전용 차량과 운전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이 일정은 여행 중간에 역사적인 석조 요새를 거쳐 이 여행의 중심이 되는 야생동물과 문화유산 유적지에 도달합니다.

스리랑카 최대 국립공원인 윌팟투에서 여행객들은 밀집한 정글과 〈빌루〉라고 불리는 천연 호수의 경관으로 나가 표범, 코끼리, 느림보곰, 사슴, 물소, 악어 및 다양한 조류를 찾습니다. 10세기 AD까지 천 년 이상 스리랑카의 수도 역할을 한 도시인 아누라다푸라에서는 투어가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다고바, 수도원 유적지 및 신성한 유적지를 걸어서 이동하며, 여기에는 고대 세계에서 지어진 가장 높은 건축물들이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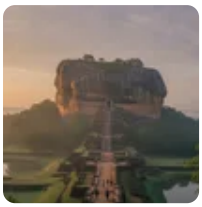
속도는 전적으로 여행객에 의해 결정되며, 운전 가이드는 해설과 물류를 위해 항상 대기합니다. 숙박, 식사, 입장료 및 비자 비용은 별도로 준비됩니다.




## 일별 여행 일정

## Day 1 콜롬보 → 판두와스누와라 → 윌파투 → 아누라다푸라

이날은 전용 차량으로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암벽 요새에 들른 후 윌파투 국립공원에서 지프 사파리를 즐기고 이어서 아누라다푸라로 향합니다.



**야파후와 암벽 요새**

야파후와는 드라비다인의 침입 이후 담바데니야에 이어 스리랑카의 수도가 되었던 곳으로, 시기리야 암벽 요새와 같은 양식으로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만 시기리야와는 달리 넓은 계단과 석조 조각, 정교하게 새겨진 기둥 장식이 특징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윌파투 국립공원**

윌파투를 가로지르는 지프 사파리를 통해 스리랑카 표범과 스리랑카 코끼리는 물론, 사슴, 물소, 원숭이, 악어, 희귀 조류 등을 공원의 자연 그대로의 지형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Rehman Abubakr · CC BY-SA 4.0

## Day 2 아누라다푸라 → 콜롬보

둘째 날은 폐허가 된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를 둘러본 후 콜롬보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아누라다푸라 고대 왕국**

아누라다푸라는 10세기까지 천 년 이상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곳으로, 그 유적은 광활한 지역에 걸쳐 불탑과 승원 건물, 연못 등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바나라마, 스리 마하 보디, 그리고 아바야기리 승원의 유적이 있습니다.

#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